

## 칠레 농업 현황 \*

서강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1. 칠레 경제 개요

칠레는 2009년 GDP의 1.5%감소를 초래한 2007~2008년도의 글로벌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2010년 2월 참혹한 지진으로 인한 손실(297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GDP의 17%에 해당)을 극복하고,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번영하고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5월에는 남아메리카 국가들 중 처음으로 OECD에 가입하였으며, 세계 경쟁력 보고서(2009-2010)에서 세계 30위(브라질 56위, 멕시코 60위, 아르헨티나 85위 등), 라틴 아메리카 대륙 1위의 국가로 선정된 바 있다. 2011년도에는 세계 GDP 순위 중 50위에 올랐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12,040달러로 중남미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 밖에, 국제적인 수준의 긴축 통화 정책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국내 수요층으로 인하여 최근 경제 성장률은 2010년도에 6.1%, 2011년도에 5.9%, 그리고 2012년도에 5.6%를 기록하였다.

칠레는 총 인구가 약 1천 700만 명인 나라로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만 5천 미국달러에 달해 중상위권의 경제 수준을 자랑한다. 그러나 지니계수<sup>1)</sup>(Gini coefficient)에 의하면 경제

\* (softvalue@krei.re.kr, 02-3299-4257).

1)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지수로, 이탈리아의 통계학자인 코라도 지니(Corrado Gini)가 1912년 발표한 논문 "Variabilità e mutabilità"에 처음 소개되었다. 지니 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함 외에도, 부의 편중이나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적인 불평등이 심한 편으로, 칠레의 최고소득층인 ABC1 계층은 전체 가구 중 5.2%에 불과하지만 빈곤층과 극빈층인 D, E계층은 전체 가구의 반을 넘는다 <표 1 참조>. 월 평균 수입은 ABC1 계층의 경우 406만 페소(한화 약 941만 원)인데 비해, 극빈층인 E 계층의 월 평균 수입은 약 15만 페소(한화 약 34만원)로 양계층간 소득격차는 27배에 달한다.

표 1 칠레 사회계층별 분류

| 분류    |      | 월 평균수입    | 가구비율(%) | 해당가구수     |
|-------|------|-----------|---------|-----------|
| 칠레 전체 | ABC1 | 4,068,991 | 5.2     | 242,851   |
|       | C2   | 1,350,933 | 14.9    | 698,021   |
|       | C3   | 706,912   | 23.4    | 1,095,213 |
|       | D    | 368,701   | 41.8    | 1,956,612 |
|       | E    | 155,136   | 14.8    | 692,793   |

주: ABC1(최고소득층), C2(고소득층), C3(중산층), D(서민층), E(빈곤층)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다음으로 칠레의 주요 산업은 크게 광공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부문은 국가 총생산량의 96%가량을 차지한다. 주요 활동 부문에는 서비스업(유통, 금융 등), 광업(구리, 석탄, 질산염 등), 제조업(식품 가공, 화학, 목재 등), 농업(어류, 과일류 등)이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광업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이 이루어진 경제구조로 인해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비롯한 기계, 중간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칠레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세계 1위 매장량인 구리를 포함한 광물 자원은 수출액의 약 절반을 차지함으로써 칠레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 서비스 부문은 GDP의 약 59.5%, 광공업 부문은 37%, 그리고 농업 부문은 3.5%를 차지하며, 종사자 비중은 서비스 부문이 64%, 광공업과 농업 부문이 각각 13%, 23%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 칠레는 세계 59개국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써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GDP의 38%를 수출에 의존하였으며, 특별히 주요 경제국인 EU,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과 FTAs(Free-Trade Agreements)를 체결하였다. 칠레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전체 수출의 23%를 차지), 미국, 일본으로서 이 세 개 국가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으로는 구리, 과일류, 어류 제품이 있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이며, 수입품으로는 광물 연료와 석유, 기계류, 차량, 그리고 전기 장비 및 전자 장치 등이 있다<표 2 참조>.

의 불평등함에도 응용된다.

표 2 칠레의 주요 무역 대상국가

| 주요 수출국 | 비 중    | 주요 수입국 | 비 중    |
|--------|--------|--------|--------|
| 중 국    | 23.3%  | 미 국    | 22.9%  |
| 미 국    | 12.3%  | 중 국    | 18.2%  |
| 일 본    | 10.7%  | 아르헨티나  | 6.6%   |
| 대한민국   | 5.8%   | 브 라 질  | 6.5%   |
| 브 라 질  | 5.5%   | 독 일    | 3.6%   |
| 기 타    | 42.4%  | 기 타    | 42.2%  |
| 합 계    | 100.0% | 합 계    | 100.0% |

자료: Comtrade, 2012 .

## 2. 칠레 농업 여건

### 2.1. 지리적 여건

칠레는 길이가 약 4,300km, 폭은 대략 175km의 특이한 국토 형태로 남아메리카의 남서부해안 극단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아르헨티나, 북동쪽으로는 볼리비아, 그리고 북서쪽으로는 페루, 국토 최남단에는 드레이크 해협이 자리 잡고 있다. 국토 면적은 75만 6,096km<sup>2</sup>로 한반도의 약 3.4배이고, 그 중 농지는 15만 7,620km<sup>2</sup>로 전체 면적의 20%정도를, 관개지(irrigated land)는 농지의 약 5.6%를 차지한다. 한편, 산림 면적은 16만 2,358km<sup>2</sup>로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지와 비슷하며, 그 외 사막지대 33%, 적설 및 빙하지대 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칠레는 위도 38도에 걸쳐 뻗어있어 기후조건은 매우 다양하며 일반화하기 어렵는데, 이는 북부 지역은 사막기후, 중부는 지중해성 기후, 동부는 아열대습윤기후, 그리고 남부는 서안 해양성 기후를 보이는 등 총 7개의 대표적인 기후대가 있기 때문이다. 칠레의 북부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Atacama) 사막이 있으며, 강수량은 극히 적은 편으로 비가 수년간 내리지 않는 지역도 존재한다. 북부의 전형적인 사막 기후로 인하여, 일 년 동안 계절의 변화는 거의 없으며 밤사이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 중부는 여름철에 따뜻하고 강수량이 적은 편이며, 겨울에는 그리 춥지 않지만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편이다. 따라서 생산성 높은 농업을 경영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 그 밖에도 눈이 많고 피오르(fjord)와 호수가 있는 남부는 여름철에도 비가

자주 오며 습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봄(9~11월), 여름(12~2월), 가을(3~5월), 겨울(6~8월)의 사계절이 관찰 가능하다.

그림 1 칠레 지도



칠레의 주요 재배지역은 서쪽의 칠레 코스트 산맥(The Chilean Coast Range)을 경계로 하는 센트럴 밸리(Central Valley)와, 아콩카과(Aconcagua) 강과 비오-비오(Bío-Bío)강 동쪽의 안데스 산맥 부근이다. 주 재배지역의 북쪽은 재배의 절반가량이 관계에 상당히 의존하며, 센트럴 밸리 이남의 재배는 서서히 양식업이나 임업, 그리고 축산업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칠레의 중부 지역은 포도 재배와 포도주를 만드는 양조장(Winery), 기타 농업에 의존하며 중남부 지역은 임업에, 그리고 남부 지역은 연어 양식을 중심으로 한 수산업과 삼림업에 종사한다.

특히 칠레는 북서쪽에 위치한 페루에서부터 남쪽의 남극까지 4000km에 달하는 긴 해안을 활용해 거의 모든 종류의 수산물 채취가 가능하며,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북반구 국가들과는 계절이 반대이므로 과일 수출이 유리하다.

## 2.2. 식품업계 연왕

최근 소비 트렌드와 관련한 칠레의 식품시장을 보면, 각종 육류 즉석식품이나 고칼로리 냉동식품보다는 열량을 줄인 제품들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 성향은 소득 수준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저칼로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ielson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칠레 고소득층 그룹의 연간 저칼로리 제품 구입액은 약 200달러로 음료 제품 중심으로 구매하며 연간 24회 이상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연간 제품 구입액이 80달러 미만으로 연간 17회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칠레에서는 10여 년 전만 해도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급속히 성장하는 추세이며 도매업계는 대형 마트와 유통시장을 포함해 연간 30~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한 슈퍼마켓 업계는 남미 지역에서 소수 업체에 집중되어 있기로 유명한데, 팔라벨라(Falabella), 센코수드(Cencosud), 월마트(Walmart Chile), 리플리(Ripley), 라 폴라르(La Polar) 등이 대표적인 도소매 회사라고 할 수 있다. 팔라벨라와 센코수드는 백화점, 슈퍼마켓, 하이퍼마켓<sup>2)</sup>(Hypermarket)에, 월마트는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에, 리플리와 라 폴라르는 백화점에 각각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곳은 월마트로서 시장 점유율의 약 34%를 차지하며, 그 뒤를 잇는 센코수드는 30%가량을 차지한다. 칠레 슈퍼마켓 협회에 따르면, 2011년 동안 152개의 새로운 상점들이 늘어(전년대비 11.9% 증가) 총 1,233개의 상점이 집계되었는데, 이 중 314개는 월마트의 소유이고 262개는 센코수드의 소유이다. 그 밖에, 신설되고 있는 상점의 규모는 400m<sup>2</sup>~1000m<sup>2</sup> 정도로 소형에서 중형이 일반적이다.

슈퍼마켓은 칠레에서 가장 중요한 유통 채널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음식 소매업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산티아고(Santiago Metropolitan) 내 슈퍼마켓 매출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칠레 남부의 비오-비오(Bío-Bío)지역, 산티아고 서부 해안에 위치한 발파라이소(Valparaiso) 지역이 차례로 뒤를 잇고 있다. 한편 가공식품업계는 칠레 수출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업계 중 하나인데 이는 채소와 과일 가공시장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칠레 가공식품 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인수와 합병을 통해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현재는 50여개의 업체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2) 슈퍼마켓·대형 할인점·백화점의 형태가 결합된 대규모 소매 점포로서, 기존의 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식료품·일용잡화에서부터 의류·자동차용품·전자제품·가구 등도 취급하는 대형 점포를 말함.

### 3. 농업 연왕

#### 3.1.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자 수

칠레의 농가인구는 2011년도 기준으로 약 230만 명이며, 농업종사자 수는 96만 명, 종사자 수 비중은 42.5%에 달한다. 또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자수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인구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큼에 따라 전체 농가인구 중 농업종사자수의 비중은 해마다 0.2~0.3%가량 증가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자 수

단위: 천 명, %

| 연도   | 농가인구  | 전년대비 증감률 | 농업종사자수 | 전년대비 증감률 | 종사자수 비중 |
|------|-------|----------|--------|----------|---------|
| 2007 | 2,333 |          | 971    |          | 41.6    |
| 2008 | 2,315 | ▽0.77    | 969    | ▽0.21    | 41.9    |
| 2009 | 2,297 | ▽0.78    | 967    | ▽0.21    | 42.1    |
| 2010 | 2,279 | ▽0.78    | 964    | ▽0.31    | 42.3    |
| 2011 | 2,261 | ▽0.78    | 961    | ▽0.31    | 42.5    |

자료: 통계청 (www.kosis.k).

#### 3.2. 농업 생산 연왕

칠레는 오늘날 150여 국가에 상당히 신선한 가공식품을 공급한다. 포도(국제시장의 29%), 자두(23%), 신선한 생선의 살코기(22%)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으며, 태평양산 냉동 연어(30%), 아보카도<sup>3)</sup>(16%), 그리고 기타 냉동 생선(10%)은 두 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보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와인(5%)과 냉동 돼지고기(5%)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수출량이 많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관련 있듯이 칠레의 주요 신선 농산물에는 포도,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쇠고기 등이 있는데 그 중 포도의 생산액이 가장 높다. 포도 생산액은 전체 생산액의 20.8%를 차지하며, 돼지고기 생산액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3) 아보카도는 멕시코와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초록 과일이며, 전 세계적으로 남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열대지방에서 자람.

표 4 주 요 생산물(2011년)

단위: MT, 천 미국달러(U.S. \$), %

| 순위 | 생산품  | 생산량       | 생산액 및 비중  |       |
|----|------|-----------|-----------|-------|
| 1  | 포도   | 3,149,380 | 1,800,239 | 20.8  |
| 2  | 돼지고기 | 527,905   | 811,517   | 9.4   |
| 3  | 닭고기  | 562,012   | 800,534   | 9.2   |
| 4  | 우유   | 2,620,000 | 766,110   | 8.8   |
| 5  | 쇠고기  | 190,993   | 515,944   | 6.0   |
| 6  | 사과   | 1,169,090 | 494,425   | 5.7   |
| 7  | 토마토  | 872,485   | 322,439   | 3.7   |
| 8  | 감자   | 1,676,440 | 266,775   | 3.1   |
| 9  | 아보카도 | 368,568   | 255,403   | 2.9   |
| 10 | 밀    | 1,575,820 | 219,567   | 2.5   |
|    | 기타   |           | 2,407,409 | 27.8  |
|    | 계    |           | 8,660,362 | 100.0 |

자료: FAOSTAT, 2011.

### 3.2.1. 곡물 생산

<표 5>의 주요 곡물 생산량 수치를 살펴볼 때, 2007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 총생산량과 단위면적당 생산량 모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요 생산 품목인 밀의 재배면적은 1961년 이후 줄어들어 1975년경부터 급감하였으며, 최근 10년간 30%이상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그에 비해 10%정도만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옥수수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종자용 옥수수의 수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 1의 곡물로 부상하였으며, 2007년도 기준으로 밀과 함께 생산량 세계 4위를 기록하였다.

표 5 주요 곡물 생산량

단위 천 톤, kg/ha

| 연도   | 쌀    |           | 밀     |           | 옥수수   |           | 감자      |           |
|------|------|-----------|-------|-----------|-------|-----------|---------|-----------|
|      | 총생산량 | 단위면적당 생산량 | 총생산량  | 단위면적당 생산량 | 총생산량  | 단위면적당 생산량 | 총생산량    | 단위면적당 생산량 |
| 2007 | 110  | 5,077     | 1,096 | 4,786     | 1,123 | 8,930     | 323,916 | 17,363    |
| 2008 | 121  | 5,792     | 1,238 | 4,575     | 1,365 | 10,141    | 329,910 | 18,153    |
| 2009 | 127  | 5,376     | 1,145 | 4,081     | 1,346 | 10,496    | 333,956 | 17,931    |
| 2010 | 95   | 3,860     | 1,524 | 5,766     | 1,358 | 11,081    | 334,263 | 17,809    |
| 2011 | 130  | 5,190     | 1,576 | 5,806     | 1,438 | 11,998    | 374,382 | 19,450    |

자료: 통계청 (www.kosis.kr).

### 3.2.2. 과실류 생산

칠레는 원래 밀 자급 국가였으나, 오늘날에는 북반구와 계절이 반대인 입지 조건을 살려 과일 생산 및 수출국으로 전환해오고 있다. 과일 생산 종사자 수와 관련하여, 2011년도 칠레 과일생산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칠레에는 과일 생산자가 약 2만 8천명이 있는데 그 중 1만 9천여 명은 국내 시장 생산자이며, 9천여 명은 수출 생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수출 생산자의 과실류 재배면적이 전체 과실류 면적의 60%이상을 차지한다.

칠레는 과일 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 국가의 수출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과일에는 포도, 사과, 키위, 자두, 오렌지, 복숭아 등이 있다. 아래의 <표 6>은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생산량, 전년대비 생산량 증감,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재구성한 것이다.

과실류의 경우 포도는 수출 비중이 남반부 국가의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재배되고 있다. 위의 <표 4>에서 생산액 비중이 다른 항목보다 월등히 높음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칠레 과실류 중 포도 다음으로 생산액이 많으며 남반구 국가들 중에서도 수출량이 가장 많은 사과의 경우, 재배면적은 포도 면적의 20%가 채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기준으로 주요 과일들의 전년대비 생산량 증감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배, 자두, 복숭아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최소 3.5%에서 최대 11.7%까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주요 생산물(2011년)

단위: 헥타르, 천 톤, %, kg/ha

| 구분      | 재배면적    | 생산량   | 전년대비 생산량 증감률 | 단위면적당 생산량 |
|---------|---------|-------|--------------|-----------|
| 포도      | 202,000 | 3,149 | 8.5          | 15,591    |
| 사과      | 35,030  | 1,169 | 6.3          | 33,374    |
| 키위      | 10,920  | 237   | 3.5          | 21,713    |
| 배       | 6,547   | 177   | ▽1.8         | 26,987    |
| 아보카도    | 36,388  | 369   | 11.7         | 10,129    |
| 자두&야생자두 | 21,001  | 293   | ▽1.6         | 13,961    |
| 오렌지     | 7,839   | 141   | 5.2          | 17,983    |
| 체리      | 13,174  | 61    | 3.5          | 4,637     |
| 레몬&라임   | 7,106   | 171   | 10.4         | 24,071    |
| 복숭아     | 19,235  | 320   | ▽10.4        | 16,632    |

자료: FAOSTAT, 2011.



### 3.2.3. 축산물 생산

2007~2011년도 축산물의 생산량을 살펴보면 신선우유 생산량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고기류의 경우에는 2009년도까지는 돼지고기가 닭고기보다 더 많았으나, 2010년도부터는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순으로 생산량이 많다. 칠면조 고기는 매년 약 10만 톤가량이 생산되며, 고기류는 전체적으로 약 10~55만 톤 정도 생산되고 있다.

표 7 칠레의 연도별 축산물 생산량

단위: 톤

| 구 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우유(신선) | 2,450,000 | 2,550,000 | 2,350,000 | 2,530,000 | 2,620,000 |
| 돼지고기   | 498,706   | 522,423   | 513,741   | 498,489   | 527,857   |
| 닭고기    | 486,265   | 509,533   | 513,366   | 503,768   | 562,091   |
| 소고기    | 241,677   | 240,257   | 209,853   | 210,744   | 190,979   |
| 달걀     | 137,200   | 142,600   | 137,000   | 190,849   | 198,348   |
| 칠면조고기  | 94,706    | 101,909   | 90,600    | 89,954    | 94,853    |

자료: FAOSTAT, 2011.

## 3.3. 칠레 무역

### 3.3.1. 무역 여건

칠레는 2012년도 기준으로 21개의 협정을 통해 58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태국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 지은 상태이다. 또한 ‘환태평양 경제적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sup>4)</sup>)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칠레 북부의 이키케<sup>5)</sup>(Iquique)와 남부의 폰타아레나스(Punta Arenas)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여 지역 균형 개발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키케 자유무역지대는 240ha의 규모로 1975년에 설립되어 자유무역지대공사(Zona Franca de Iquiques S.A)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상업 및 공업 활동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의 경우 입주할 수 있다. 이키케 자유무역지대의 아리카(Arica) 공업단지 마찬가지로

4) 2015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이 2005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맺어진 협력체로서, 이후 미국·호주·뉴질랜드·일본 등이 참여를 선언하여 2013년 4월 현재 12개국이 교섭에 참여 중임.

5) 칠레 북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 이키케 자유무역지대는 남미지역 중계 무역의 중심지이며, 해변가를 보유한 관광지로도 유명함. 도소매업체 1,800개사, 무역관련 서비스 업체 150개사, 창고(1,500㎡), 부품센터, 공업시설, 쇼핑몰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하루 40억 달러 이상의 유동 자금이 있음.

로 자유무역지대공사가 관할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이외 별도의 산업공단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 기타 자유무역지대 입주 시에는 수입관세(6%) 및 부가가치세(19%)가 면제되는 법률상의 특혜가 있으며 자유무역지대에서 칠레의 여타지역으로 반입될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이 있다.

칠레로 수입할 수 있는 제품들의 수량이나 유형, 외환시장 이용 조건 등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하지만 3,000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모든 수입 건에 대해서는 관세 당국의 승인과 보고서 제출이 이뤄져야 하며, 상업은행은 3,000달러 미만의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칠레에서의 해상 수출수입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언급해보면, 우선 칠레에서의 해상 수출에 있어서는 컨테이너 당 약 980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7가지이다. 서류 준비를 비롯하여 수출 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에서의 업무를 포함하여 수출에 총 소요되는 기간은 15일이다. 반대로 해상 수입에 있어서는 컨테이너 당 약 965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수입에 필요한 서류가 5가지, 서류 준비를 비롯하여 수입 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 업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12일이다.

### 3.3.2. 무역 연망

칠레의 최대 수출 품목은 구리로서 전성기 때에는 칠레 전체 수출의 약 70% 이상이었으며, 현재도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도 수출 내역을 보면, 광산물 전체가 수출액의 61.1%, 농림수산물 및 가공품은 205억 달러로 25.5%에 달하였는데 농림수산물 및 가공품은 2000년 이후 금액과 수출 점유율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무역에 있어서는 2011년도 기준으로 수출액은 806억 달러, 수입액은 742억 달러로서 최근 10년 이상 안정된 흑자를 올리고 있다. 그 중 농림수산물 무역수지와 관련하여, 대미 수출에 대한 수입은 19%, 대(對)EU 수입은 13%에 불과 하는 등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아르헨티나와의 교역에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칠레의 농수산품의 수출과 수입은 최근 10년 사이에 크게 늘어났으며 수출은 약 51억 달러에서 145억 달러로 3배, 연평균 12% 성장한 반면 수입은 12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4배 이상, 연평균 17% 증가하였다. 현재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및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뉴질랜드 유제품 등의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칠레의 농축산업과 관련한 수출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8>은 2010~2012년도의 주요 과실류 수출액을 정리한 것이다. 과실류 수출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포도(건포도 포함)로 2012년도 수출액은 약 12억 1천만 달러이며, 과실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30%를 초과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출액이 많은 품목은 사과, 배 등으로 과실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한다. 살구·자두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도에 11.7%이며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1년 대비 생산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사과, 배, 살구, 자두 및 기타 과실류 등의 품목은 증가한 반면, 포도(건포도 포함), 냉동과실, 견과류, 파인애플, 아보카도 등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파인애플과 아보카도는 전년 대비 감소 비율이 15%로 주요 과실류 중 가장 컸다.

표 8 과실류 수출액

단위: 십만 달러(U.S.), %

| 품목           | 수출액    |        |        | 비중   |      |      | 수출액 증감률<br>(2012/2011) |
|--------------|--------|--------|--------|------|------|------|------------------------|
|              | 2010   | 2011   | 2012   | 2010 | 2011 | 2012 |                        |
| 포도(건포도 포함)   | 10,866 | 12,126 | 12,101 | 33.1 | 31.9 | 31.1 | ▽0.95                  |
| 사과, 배 등      | 6,436  | 6,901  | 7,196  | 19.6 | 18.0 | 18.5 | 4.27                   |
| 살구, 자두류      | 3,139  | 4,230  | 4,550  | 9.6  | 11.0 | 11.7 | 7.57                   |
| 기타 과실류       | 3,875  | 4,736  | 4,828  | 11.8 | 12.4 | 12.4 | 1.94                   |
| 냉동 과실, 견과류   | 2,284  | 3,190  | 2,927  | 7.0  | 8.3  | 7.5  | ▽8.23                  |
| 파인애플, 아보카도 등 | 1,226  | 1,379  | 1,172  | 3.7  | 3.6  | 3.0  | ▽15.00                 |

주: '비중' 항목은 과실류 수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칠레 관세청

칠레의 대표산업 중 하나인 임업은 칠레 중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펄프, 원목 등이 있는데 펄프의 수출량은 세계 2위 수준이다. 칠레의 주요 목재류 수출액은 2010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0년의 경우 대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칠레 임업의 생산량 및 수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0~2012년도까지 최근 3년간 주요 목재류 수출액을 살펴보면 펄프의 수출액은 2012년도에 약 25억 3천만 달러로서 매년 가장 많았으며, 꾸준히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목재는 2012년도에 약 20억 8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였으며, 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도 대비 수출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목재와 펄프는 모두 감소한 반면, 코르크는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르크

는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동일하였다<표 9 참조>.

표 9 주요 목재류 수출액

단위: 십만 달러(U.S.), %

| 품목  | 수출액    |        |        | 비중   |      |      | 수출액 증감률 (2012/2011) |
|-----|--------|--------|--------|------|------|------|---------------------|
|     | 2010   | 2011   | 2012   | 2010 | 2011 | 2012 |                     |
| 목재  | 18,152 | 21,721 | 20,833 | 43.0 | 42.8 | 45.0 | ▽4.09               |
| 펄프  | 23,984 | 28,985 | 25,360 | 56.8 | 57.0 | 54.8 | ▽12.51              |
| 코르크 | 84     | 77     | 93     | 0.2  | 0.2  | 0.2  | 20.26               |

주: '비중' 항목은 주요 목재류 수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칠레 관세청

주요 육류 수출액을 살펴보면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순으로 그 비중이 큼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주요 육류 수출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도에는 69.1%로, 약 4억 7천만 달러의 수출액 달성하였다. 또한 다른 품목과는 달리 돼지고기는 최근 3년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이 밖에 2011년 대비 수출액 증감률을 보면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각각 18.4%, 2.0%씩 증가하였으나, 쇠고기는 전년 대비 44.2%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0 참조>.

표 10 주요 육류 수출액

단위: 십만 달러(U.S.), %

| 품목   | 수출액   |       |       | 비중   |      |      | 수출액 증감률 (2012/2011) |
|------|-------|-------|-------|------|------|------|---------------------|
|      | 2010  | 2011  | 2012  | 2010 | 2011 | 2012 |                     |
| 돼지고기 | 3,230 | 4,035 | 4,776 | 61.3 | 64.4 | 69.1 | 18.4                |
| 닭고기  | 1,691 | 1,930 | 1,969 | 32.1 | 30.8 | 28.5 | 2.0                 |
| 쇠고기  | 349   | 303   | 169   | 6.6  | 4.8  | 2.4  | ▽44.2               |

주: '비중' 항목은 주요 육류 수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칠레 관세청

## 4. 칠레의 주요 농업지원제도

### 4.1. 농업 보조금 정책

OECD 보고서에 의하면,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농가 소득액의 약 6분의 1이 농업인에 대한 보조에서 기인한다. PSE는 2011년도에 총 농가소득의 15%에서 2012년도에 1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농가 지원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하향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생산자 보조금 추정액이 1995~1997년도에 평균적으로 21%를 보였던 것에 비해, 2010~2012년도에는 16%를 보였던 것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대륙별로도 북아메리카(캐나다, 미국, 멕시코)의 평균 보조금은 지난 15년간 12%에서 9%로 하락하였으며, 유럽(중서부 유럽과 터키, 이스라엘 포함) 또한 34%에서 20%로 감소하였다. 아시아에서도 감소하였는데, 변동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생산자 보조금 추정액은 1995~1997년 동안 22%에서 2010~2012년에는 20%로 2%p 하락에 불과하였다. 한편, 칠레를 비롯하여 기타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국가들 등)은 2010~2012년도에 낮은 수준이지만 평균 4%의 안정적인 지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칠레 농업 정책은 농업 생산성, 경쟁력, 천연 자원의 보유와 향상, 식량 안보, 그리고 시장왜곡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총 보조금은 예산을 통해 농업인의 50%가량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농업인에 대한 농업 보조, 또는 생산자 보조금 추정액(Producer Support Estimate, PSE)은 근본적으로 투입량에 근거한 직접 지불금에서 기인하며, 주로 영세 농업(가족단위 농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예산 배분 현황은 2011년도의 7억 3천 6백만 달러에서 2012년도에는 7억 3천 5백만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다.

2012년도에는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불금의 54%가 농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 지원액은 2억 7백만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안은 영세 농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소규모 농가와 함께 일하는 INDAP(National Institute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에 의해 운영된다. 중요한 것은 토착 사회(Indigenous Community)를 위한 앞의 계획안이 지난 2년 사이 2010년의 1천 7백 50만 달러에서 2012년도에는 3천 3백 70만 달러로 재원(財源)을 늘렸다는 것이다.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불금의 또 다른 범주 하나는 비옥도 증진 프로그램과 연관 있다. 2012년에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금액은 6천만 달러에 달하였고, 재원의 60%는 INDAP에 의해, 나머지 40%는 칠레 농림부(SAG)에 의해 운영되었다. INDAP은

정부 기관으로 소작농들에게 현 이율로 용자를 제공한다. 용자금액은 2012년도에 1억 1천 8백만 달러였으며 4만 5천명의 소작농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 4.2. 작물 보험 및 기타 제도

작물 보험 프로그램은 중·대규모의 농가들에게는 보험료의 50%를 보상하며, 소규모 농가들에게는 최대 90%까지 보상해주며,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1인 기준으로 3,698달러 정도이다. 추가로 2012년도에는 우(牛)과의 동물의 보건 및 사망 등의 사고(특정 질병, 도난, 자연재해 등에서 기인)와, 가격 변동이 심한 밀과 옥수수과 관련된 두 개의 새로운 보험 계획안이 도입되었다. 가격 변동에 대한 보상은 시카고 증권 거래소의 국제 가격을 참고로 하여 농업인들이 최소 생산비용은 만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2011년도에는 계절적 노동 계약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농업 근로자 관련 노동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연간 평균 근로 시간, 월 최대 초과근무 시간, 보수액 등을 재정비 한 것이다. 이 법안은 80만 명 이상의 농업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며, 2013년도 1월에는 국가적으로 산후 관련 법안이 새롭게 재정됨에 따라, 출산 연령대의 여성 농업인 6만 3천여 명이 수혜를 입게 되었다. 노동력 부족과 관련하여서는 특정 조건 및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제출된 상황이다.

이 밖에도 2012년도 농업 분야 예산 배분의 20%는 관개 사업에 지원되었다. 칠레 중부 지방의 5년에 걸친 최악의 가뭄으로 인하여, 물 저장 능력을 2022년까지 30% 증대시키고 유통체계 망과 관개 지역을 확충시킬 목적으로 범국가적인 “관개(Irrigation) 계획안”을 세웠다. 수용 면적은 15개의 댐 건설로 인해 120,000m<sup>3</sup>가 확충될 것이며 관개 유통로는 1000km 연장되어 25만 3천 ha의 관개 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참고문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9. 「칠레 농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2. 「신홍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_칠레」. 한국조세연구원.
- OECD. 2013.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OECD.
- USDA FAS. 2009. *Chile Food Processing Sector, 2009*,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참고사이트

- 구글 ([www.google.co.kr](http://www.google.co.kr))
- 국제무역협회연맹 ([www.fita.org](http://www.fita.org))
- 글로벌무역정보서비스 ([www.gtis.com](http://www.gtis.com))
-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http://www.kati.net))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위키백과 ([www.en.wikipedia.org](http://www.en.wikipedia.org))
- 칠레관세청 ([www.aduana.cl](http://www.aduana.cl))
- 통계청 ([www.kosis.kr](http://www.kosis.kr))
- 해외산업정보 ([www.kiet.go.kr](http://www.kiet.go.kr))
-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 ([www.ois.go.kr](http://www.ois.go.kr))
- FAOSTAT ([faostat.fao.org](http://faostat.fao.org))
- UN Comtrade ([www.comtrade.un.org](http://www.comtrade.un.org))